

#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12, 마태복음 12-14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2회기 마태복음 12-14장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다음 문단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본질과 안식일의 본질을 놓고 약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허용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전통은 또한 안식일에 금식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밭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지 않았다면 금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놔두셨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식사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껍질을 벗기고 곡물을 갈아서 입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읽지 않았나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매우 문맹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읽어보지 못하셨나요? 그는 4절부터 6절까지 성경의 예를 제시합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

제사장은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그가 실제로 그와 함께 동료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대제사장이 다윗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제사장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성별된 빵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인간의 필요가 우선시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논쟁을 벌이는 것이 편리할 때 그 논쟁을 사용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에 부합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9장과 13절에서 했던 것처럼 12장과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듯이 자비 대 희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에는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모든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아모스 5장, 공의가 물 같이 흐르게 하며 공의가 흐르는 강물 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된 의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의 희생과 자비의 희생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비와 희생이 비교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 일의 절정을 이루십니다.

글쎄요, 만약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그는 신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마치 그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사람의 아들(Son of Man)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 인간은 간접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그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아들로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바리새인들과 약간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료 지원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료 지원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약을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뻗자 온전해졌습니다.

손을 뻗는 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두 바리새인 학파 중 힐렐파는 안식일에 병자를 위한 기도까지 허용했지만, 삼마이파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자체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손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는 짐승을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금지한 유일한 집단은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을 돕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도 가축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안식일에 술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세네파는 좀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배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우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적입니다.

글쎄, 당신은 동물을 위해 이것을 할 것입니다. 늑대 같은 다른 종류의 동물을 위해 구덩이를 팠는데, 때로는 자신의 동물이 그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동물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그는 오랫동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였습니다. 그는 다른 날이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날에 와서 낮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날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날이었습니다. 힐링이 가능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관대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여, 당신이 그들을 방해하면 그들은 당신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의 규칙에 따라 처형당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굴에 들어가서 방금 죽은 누군가가 칼을 들고 그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들고 그 사람 위에서 서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는 힐려파가 따르는 규칙조차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삼마이트의 규례조차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손을 내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 원칙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항상 우리의 모습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분이 율법에 관한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단순히 교회의 전통 때문에 어떤 것을 따르지만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려면 말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12:16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썄, 그것은 이미 Mark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모두 마크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가복음을 통해 주제를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고치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4. 야이로의 딸을 키우실 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43. 7장 36절에서 귀머거리를 고치셨을 때, 마가복음 8장 26절에서 소경을 고치실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글썄요, 그들이 흔히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가서 말했지만 그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이미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11.12에서 왕국이 외부인에게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25과 3:11에서 항상 귀신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24에서 자신이 피정하러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인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이는 너무 빨리 십자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것이 이사야서의 내용도 성취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 마태는 이사야 42장 1-4절을 인용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종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글썄요, 마태는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번역하여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동일하게 번역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은 이 사랑하는 종에 대하여 말할 때 그가 승리할 때까지 부르짖지 아니하며 약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21, 그러면 이방인이나 열방이 70인역에 표현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글썄요, 그게 말이 되네요.

이는 마태가 말하는 이방인 선교에 다시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소리 지르지도 않고 약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팔을 불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맥락에서 이사야 42장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는 내 종이 아니면 눈먼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사자 외에 귀머거리가 누구냐? 이스라엘은 마땅히 해야 할 종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곧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종의 사명을 완수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또다시 고소를 당하십니다.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행할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내러티브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악마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했지만, 고발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법정에서 당신을 고발했다면, 가능하다면 당신은 '아뇨, 당신이 그랬지

내가 아니라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여기서 혐의를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세대, 너희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악마를 다시 초대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12.45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그들을 일곱 배로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의 갈등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들은 이미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글썄요, 그는 그들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모독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4절의 책임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악마에 의한 엑소시즘은 마법의 한 형태였으며, 사람들은 종종 마법의 파피루스에서 그것을 발견했으며, 사람들은 영혼을 제거하기 위해 영혼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마술을 행했다고 그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 세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탄이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이 널리 악귀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마도 가끔은 여러분이 사탄을 더 따르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광범위한 귀신 쫓아내기 행사는 왜 사탄이 거기에 개입하겠습니까? 둘째, 내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느냐?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악취와 마법의 반지, 주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대답은 이것은 마술이나 영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영에 의한 것입니다(12:28).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영과 왕국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의 글에서 그는 왕국의 언어보다 영을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영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과 20절에서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의 마술사들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그들은 일부 내용을 출애굽기 8장에서 복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8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현시점에서는 작은 수준에서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글쎄, 마태는 그 표현을 해석하고 있으며 그의 해석은 확실히 정확합니다. 신의 손가락,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의 문맥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8절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42장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의 능력을 받은 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국의 종말론적 약속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44장, 에스겔 36장 등. 영은 요엘 2장과 요엘 3장에 이어지는 약속된 회복, 즉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장래에 성령이 부어질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구절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께서 예수의 사역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왕국이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의 사역에 임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성령, 즉 예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르고 그분을 악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영의 분명한 증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면서 그것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갖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메시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만큼 단단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만큼 닫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아, 내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궁금해합니다. 보세요, 만약 당신이 회개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마가복음 3장 27절에도 있습니다. 마가는 실제로 이것에 대한 예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무 강해서 아무도 묶을 수 없는 한 무리의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강한 자를 다른 방식으로 결박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가끔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결박한다, 사탄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믿음에 응답해 주셨는데, 비록 제가 잘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결박한다,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며 돌아다니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 이야기에서는 종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법의 텍스트에서는 영혼이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묶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여 강한 자가 그의 물건을 빼앗게 하는 것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사로잡힌 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그 강한 자를 어디에 묶으셨나요? 만약 그가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면, 그가 사탄을 묶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은 마태복음 4장의 유혹에서 그를 저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힘센 자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약탈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강한 남자는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분명히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글썄요, 아무리 명백한 증거라도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진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회개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표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가 신호를 주지 않은 것처럼 12:38에서 신호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에게 많은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바다 생물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죽으셨습니다. 고대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3일은 하루의 일부를 하루 전체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3일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초대받은 것은 실제로 설교였습니다. 심판 때에 유대인 교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부자들이 심판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나는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부자들은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가난한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가난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불경건한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비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보다 빛이 부족한 이 사람들은 심판 때에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심판 날에 니느웨와 스바 여왕이 너보다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야기의 대략 이 지점인 3:31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3:21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신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 마태는 여기 있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조금 더 친절합니다. 그는 그 요점 전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문화에서 필수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제자들이 나의 영적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는 지상의 가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문화에서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왕국 임재의 비유인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세요. 여기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일곱, 여덟 개의 미래 왕국 비유와 마찬가지로 일곱, 여덟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왕국의 존재.

겨자씨 대 겨자나무. 다시 반죽에 효모를 섞었습니다. 현재의 숨겨진 왕국과 미래의 영광을 강조하십시오.

이 비유에는 또한 미래의 추수를 위해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이 나옵니다. 또한 그는 밀과 가라지가 미래까지 함께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의 왕국에 비추어 현재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활동입니다.

그 나라는 특별히 누룩과 같고, 보물과 같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진주와 같습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일부 학자들은 그리스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비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와 바울은 삽화를 사용하고 비유를 많이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나 다른 유대인 교사들의 비유처럼 생생한 이야기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진실성을 암시합니다.

후대 교회에서는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후대 교회에서는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는 그들이 증거에 열려 있다면 예수께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마살은 때때로 그리스어로 비유, 그리스어로 비유로 번역되며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야기, 속담, 조롱하는 노래, 수수께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도 같은 범위의 문학적 형식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인 칠십인역이 때때로 마살을 번역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비유와 가장 가까운 구체적 유사점은 다른 유대인 현자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동물 비유와 우화를 발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의 최초의 야채 이야기는 사사기 장에 나옵니다. 9, 기드온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말함. 그러나 사무엘하 12장에는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들려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와 가장 가깝고 구체적인 유사점은 다른 유대인 현자들이 말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동일한 스토리라인을 사용합니다. 랍비들도 이야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땅 주인과 밭, 왕이 자기 자녀들과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푸는 등 예수께서 하셨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스톡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랍비들은 예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단 혐의로 잠시 체포되었던 랍비 Eliezer ben Hurcanes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에 대해 거짓 비난을 받도록 허락하셨나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랍비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당신이 좋아하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말했다, 아, 그래, 뭔가가 있었어. 글썄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런 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분의 추종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승인하는 데 매우 열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유대인 현자들이 자신의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종종 이야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원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Sirach 등에서 그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기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랍비들은 예수보다 왕실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가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좀 더 농업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이 특별히 갈릴리 농부들, 갈릴리 가난한 농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랍비들은 또한 전통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문화의 흐름에 어긋나도록 전통적인 가치를 전복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좀 더 종말론적이며 마지막 때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랍비들은 바르 코크바(Bar Kokhba)라는 이름의 거짓 메시아를 따라 불탔기 때문에 그 일을 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 메시아가 거짓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 관해 기꺼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목적. 비유는 본질적으로 설교 예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설교가 없는 예화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어울리는 설교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종종 공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왕국의 비밀을 지켜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중 성서 연구에 다시 초대하거나 자신을 더 가까이 따르도록 권유하여 그들도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만큼만 충분한 단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열두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즉 예수의 제자이자 그분을 밀접히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의 일부 가르침에 대해 더 회의적인 일부 학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비유를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설명하신 적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고대 유대 문화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보면 그것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여 해석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비밀 가르침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번에 한 제자에게만 전하는 비밀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좌 수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창조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가지고도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유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많은 부분은 문맥을 보면 자명합니다.

확실히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자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대부분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회의적인 학자들 중 일부는 이 학자들이 내놓은 비유에 대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설명에 대한 복음서 기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의 주요 출처는 누구일까요? 제자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해석을 들었을 것입니다. 글썄요, 어거스틴과 중세 해석가들은 비유를 너무 많이 우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자들은 비유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상징적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비유의 우화화에 과잉 반응했습니다.

따라서 Adolf Jülicher는 각 비유에는 단 하나의 의미와 하나의 주요 요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현실과의 접촉점을 두 가지 이상 설명하실 때마다 Jülicher는 그 설명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Dodd와 Jeremias, 그리고 Jeremias가 뒤따른 Jülicher는 유대 문학을 꽤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잘 알았어야 했지만, Jülicher, Jeremias 및 Dodd는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 비유에서 그들은 종종 여러 요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의 접촉.

모든 지점이 무언가를 상징할 필요는 없었지만 종종 여러 지점이 있었습니다. Jülicher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법 규칙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점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대개는 몰랐고, 확실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규칙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학 비평가인 벤 위더링턴(Ben Witherington)이 지적했듯이, Jülicher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를 잘못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Jülicher와 동시대인인 Fiebig은 비유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랍비들이 비유를 어떻게 말하고 해석하는지를 귀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Jülicher와는 반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obert Johnston은 실제로 Tannaitic 비유에 관한 60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작성하여 Fiebig이 옳았고 Jülicher가 틀렸다는 것을 자세히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비유에 대해 아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유대인 비유에 관해 글을 쓰는 유대인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종종 해석이 있었고 종종 여러 접촉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경의 비유에도 종종 여러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다른 것을 대표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랍비 비유의 한 예입니다. 한 랍비는 과수원을 지키는 경비병이 필요한 왕에 관한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지 못하는 한 남자와 보지 못하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견지 못하는 사람은 도둑을 찾아낼 수 있었고, 견지 못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 손을 휘두르며 침입자를 겁주어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의 사과를 훔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견지 못하는 남자와 보지 못하는 남자가 주인보다 한 수 앞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걷지 못하는 남자가 맹인의 등에 올라타서 사과를 훔쳤습니다. 왕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 누가 사과를 훔쳤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중 한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름발이를 맹인의 등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너희가 함께 죄를 지었으므로 함께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랍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활시켜서, 함께 죄를 지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함께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 비유에서 재판관과 왕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눈먼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접촉 지점이 여러 개 있었고 적어도 3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접촉 지점이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즉 땅의 비유에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맥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종교 엘리트들과 아마도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반대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유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고향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쨌든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듣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흔한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농업 농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또는 부유한 지주를 위해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쟁기질하기 전에 씨를 뿌렸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파종하기 전에 쟁기질을 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쟁기질하기 전에는 절대 씨를 뿌리지 마세요. 그러나 고대 유대 문헌에서 우리는 그것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쟁기질하기 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해가 그 사람의 현장에서의 첫 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만큼 지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탈리아의 평균 곡물 수익은 약 5~6배였습니다. 유대에서는 일곱 배 반에서 열 배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뿌린 모든 곡물에 대해 평균 7.5에서 10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좋은 땅이 나쁜 땅을 이루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나쁜 땅을 보충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의 비밀은 오직 너희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왕국의 비밀을 원한다면, 그들은 주변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단지 이야기와 치유를 위해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중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도 남아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십니다. 그 씨앗은 악마에게 도난당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니요, 악마는 편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씨앗을 훔치는 배후에 있습니다. 마귀가 씨앗을 훔쳐갑니다. 우리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나가는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를 보거나 가르침을 듣긴 하지만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그들의 헌신이 너무 얇고 시험은 또

다른 종류의 토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땅, 부와 이생의 일에 정신이 산만해진 사람들.

그들은 다른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국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첫 번째 것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그룹, 즉 네 번째 종류의 땅, 즉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석을 위해 머물렀던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단지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튜 과정을 통해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은 인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아마도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매우 강한 경건의 삶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뭔가를 듣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왕국 백성에 대한 미래의 계시는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13:31, 32)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해석을 하신 것처럼, 가라지 비유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에 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비유(13:24-30)는 36-40절의 해석과 함께 현재 왕국이 숨겨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실적인 농업이야기 13:24~30 입니다.

집주인은 랍비 이야기와 그리스 이야기에 흔히 등장했습니다. 밭은 비록 임시적이었지만 랍비의 비유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어떤 의미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왕국이 그가 비유에서 언급한 첫 번째 것과 반드시 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랍비들이 왕국이 이 비유의 내용과 같은 전체 이야기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언급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왕국의 방식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적이 있었습니다. 고대세계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농부들에게도 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농부들이 때때로 다른 농부들에게 했던 일은 그들이 때때로 *Lolium tomentosum*이라는 참나무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밀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것을 끔찍한 비유라고 부릅니다.

또한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을 가라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옥수수를 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했기 때문에 경쟁 농부들이 때때로 이런 식으로 불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잡초를 뽑아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뽑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밀처럼 보였기 때문에 초기에 밀이 일부 뽑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이 완전히 자란 후에는 가라지와 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땀감 외에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뉘게 됩니다. 가라지나 가라지 비유의 해석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왕국과 동일한 현재의 숨겨진 왕국에 대한 비유를 제시하십니다. 겨자씨는 속담에 따르면 작았지만 매우 큰 식물로 자랐습니다.

학자들이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가장 자주 식별하는 것에 따르면, 겨자나무는 실제로 매우 큰 관목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약 8~10피트 높이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들은 가지에 둥지를 많이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지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에스겔 17장, 특히 다니엘 4장 12절과 매우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 4장 12절은 이러한 여러 왕국, 즉 느부갓네살 왕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을 나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왕국의 언어를 암시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다니엘이 말한 네 왕국, 즉 다니엘이 말한 이전 왕국을 대체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효모는 때때로 악과 연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떡이나 빵에 누룩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누룩은 때때로 악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격적인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모의 주요 사상은 악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위해 누룩이나 누룩을 꺼내는 경우는 단지 서두름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효모를 다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누룩의 핵심은 바로 누룩의 가장 특징인 누룩의 침투성이다. 반죽 전체에 섞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자가 반죽 속에 숨겼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것은 특이한 설명이므로 강조됩니다. 그것은 요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효모는 반죽에 스며들지만, 반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더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릴리 여자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 빵을 굽곤 했지만, 그 양은 갈릴리 여자가 일반적으로 굽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기 밀가루는 대략 50 파운드입니다. 100명이 넘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50파운드에 해당하는 미터법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100명에 해당하는 미터법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빵이 정말 많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많이 고치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 이상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알다시피, 관찮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력을 주셔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신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왕국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소식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악취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음만을 본 것처럼 우리 사도적 고난 속에서도 고난만을 봅니다. 그러나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것이 생명의 메시지임을 인식하고, 사도들의 고난 속에서 이것이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인식합니다. 생명을 붙여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왕국을 항상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외부인에게는 수수께끼이지만 제자들, 즉 기꺼이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라지, 가라지, 잡초의 비유를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 악인들을 용납하시지만, 1336년에서 43년 사이에 그들 사이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에 대한 이미지는 친숙했습니다.

바룩하서와 에스라서 4장과 같은 후기 유대인 작품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죄인들을 포용하셨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은 질책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누가 왕국에 들어가고 누가 없었는지 걸모습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내할 것인지, 누가 실제로 반응할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듣지 못한 메시지에.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뿌립니다. 당신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메시지는 먼저 갈릴리와 유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시리아, 터키, 이집트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제국까지 더 퍼졌습니다.

그것은 동쪽으로 서아시아로, 더 나아가 아시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00년대 약속 제국은 로마 제국과 거의 동시에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한 시기에 복음이 가장 많이 번성했던 곳 중 일부는 지금은 복음이 가장 적거나 적어도 지금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복음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1세기에는 누구도 이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아시아의 특정 지역이었죠. 그 중 많은 일이 1세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받을지 항상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습시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 기초를 다졌다가 나중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폭발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됩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부분은 유대인 공동체의 일부로 남아 있다는 점일 수 있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교제하십시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 안에 불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이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재촉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지체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13:44-53은 왕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왕국은 진정한 추종자들에게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가치가 있습니다. 13:44-46, 예수님은 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은 종종 보물을 숨겼습니다.

그것은 눈에 띄는 민속 모티브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보물을 얻게 됩니다.

이곳의 한 소작농은 아마도 부재중인 지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보러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 그는 가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토지를 구입합니다. 토지 계약은 종종 명시하기 때문에 토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토지 계약을 맺고 토지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랍비들이 전하는 대부분의 보물 이야기는 법적 타협, 발견자의 부, 회개에 대한 보상과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비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모든 것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라도 영생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이와 같은 또 다른 비유 곧 상인과 진주를 말씀하시느니라.

농민과 달리 자본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부분의 상인은 단일 제품을 판매했지만 진주는 더 비싼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수입품이 로마 제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치품이었습니다. 잠수부들은 홍해, 페르시아만, 인도양에서 진주를 채취했습니다. 진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유대인 이야기에서는 사람의 경건함, 안식일에 물고기를 얻기 위해 과도한 돈을 지불하여 물고기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 등을 강조합니다.

때때로 진주는 토라 가르침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서 한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 진주는 모든 것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진주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최후의 심판만이 진정으로 왕국에 헌신한 사람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13:47~50.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어부들이 식용할 수 있는 생선과 유대교 율법에 어긋나는 생선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레위기 11장).

왕국은 아직 불로 소멸되지 않았지만, 왕국은 세상에 은밀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왕국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영원히 그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3장 51절부터 53절까지에서 왕국의 참된 교사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법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5시 17분부터 5시 20분까지. 뭐, 법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이미 율법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후에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국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함께 토라에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들을 왕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와 교사와 서기관을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에 대해 읽습니다. 28:19에서 그는 우리가 왕국을 위해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 자신도 아마도 왕국을 위한 그러한 서기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알았고, 천국 복음도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롯 안티파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이 갈릴리 총독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글썄요, 헤롯은 한 명 이상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아들 아켈라오는 유대를 오래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위에서 쫓겨났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지사, 특히 사분왕정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일에만 전념하여 로마를 행복하게 하여 세레 요한 때까지 대대로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는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너무 좋아해서 그녀가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공주였고, 공주로서 일부다처제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이미 다른 아내가 있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첫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티파스는 첫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첫 번째 아내도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나바테아 아랍인의 왕인 아레타스 4세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나바테아는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데가볼리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에는 다마스커스를 통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마스커스 무역 공동체의 우두머리로서 그곳에 주둔한 민족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영토를 장악했고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실제로 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로마 제국 아래의 왕으로서 권력을 갖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딸은 헤롯 안티파스 1세와 결혼했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현명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티파스의 첫 아내인 나바테아 공주는 안티파스가 그녀와 이혼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모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안티파스가 이혼하기 전에 아버지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리와 나바테아인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Nabataea의 일부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좀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신의 영토에서도 갈릴리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까지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나바테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토 내에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신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인종 구분 등을 따르지 않는 분열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나바테아인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매우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의 왕국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헤로디아와의 잘못된 결혼은 정치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실제로 세레 요한이 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세레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헤롯에게 내린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정치적인 문제였고, 세레 요한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미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존이 따라왔다. 때로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도덕적 문제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그가 이 결혼에 대해 한 일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을 선동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을 그의 파риан 요새 인 마케루스의 지하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다시 마케루스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풍경이 좀 더 있는데, 그건 던전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서 더 길지만, 마태복음은 세부 사항 중 가장 관련성이 높습니다.

여기의 잔치는 문맥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00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주인이십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썩은 주인입니다.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을 위해 성대한 생일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습관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한 해를 주신 것을 축하하고 싶고, 그날 사람들이 나에게 특히 친절하게 대해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엘리트들은 종종 그리스 관습을 따랐습니다. 헤롯 가문의 연회는 부도덕한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종종 복음서에 나오는 보고에 매우 회의적인 한 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헤롯 가문이 그런 일로 악명 높았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연회.

마가복음 6장은 에스더의 이야기와 대조됩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왕비 와스디가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 공주(요세푸스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음)가 손님들 앞에서 음란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로쉬의 아카쉬 왕, 크세르크세스 왕은 아마도 왕국의 절반을 에스더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마크에 있어요. 매튜는 그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6장에서 안티파스는 술취한 정욕 때문에 살로메에게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제 안티파스는 그녀에게 왕국의 절반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단지 사분왕일 뿐입니다.

로마는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실제로는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음, 살로메는 똑똑해서 좀 더 실용적인 것을 요구해야 해요.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제 마크는 어머니에게 물어보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왜 나가야만 했나요? 글썄요, 마케루스는 대부분의 궁전과 마찬가지로 남자용과 여자용 별도의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곳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묻습니다. 헤로디아는 남편의 술 취한 정욕을 목격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 경우에도 그가 어떤지 알 만큼 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그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만찬 손님들 앞에서 그의 명예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는 다른 통치자들이 철학자 같은 말을 들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처럼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슬펐습니다. 그래서 John은 참수당합니다. 이것은 보다 자비로운 처형 형태였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사람이 더 빨리 죽기 때문에 로마 시민 등이 사용하는 형태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후 그의 제자들은 자기 목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장사하러 왔는데, 이는 몇 장 뒤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의 불충실함을 대조하여 강조합니다.

마가는 머리가 접시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잔치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이 잔치의 매우 기괴한 절정입니다. 이 기괴한 요소와 관련하여 우리는 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소년이나 여성을 위해 그들 앞에서 누군가를 처형함으로써 그들을 즐겁게 했던 일부 통치자들의 고대의 또 다른 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순교자로 묘사되고 있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글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적 원칙이 그들의 삶에서 작용했습니다. 간음은 결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마가는 때때로 안디바를 왕으로 부르는데, 그는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는 그들이 가진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티파스는 기술적으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대부분의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분봉왕에 불과했습니다. 마가는 헤롯 안티파스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헤로디아에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를 헤롯이라고 부르며, 조금 더 성숙한 행동을 한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이름을 아그리파라는 칭호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가이우스 칼리굴라와 파티 친구였습니다. 가이우스 칼리굴라는 나중에 황제가 되었고, 그는 오랜 친구인 아그리파를 보살폈습니다. 아그리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유대에서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그곳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실제로 로마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칼리굴라가 죽자 다음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파 1세를 유대 지역의 왕으로 보냈고 그는 41년부터 44년까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요세푸스와 사도행전 1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여기 헤로디아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낸 후 와서 완전한 왕이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한 세대에 걸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적이 없었고 헤로디아는 화가 났습니다. 내 동생은 왕이야, 그녀가 말했다. 왜 왕이 아니세요? 그러나 황제가 말하지 않는 한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안티파스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다가 마침내 굴복하자 안티파스가 황제에게 청원하여 “제가 왕이 되어도 될까요?”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황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한번 사진을 올려 죄송합니다. 나는 무료로 무엇이든 가져다가 혼합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황제는 안티파스의 요청에 너무 화가 나서 안티파스를 갈리아로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로디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친구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누이이므로 유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아니요, 나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유배 생활의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문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John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2회기 마태복음 12-14장입니다.